

2018-09

# The 2017 Workshop on Korean Data Services: useful data resources for Korean data reference

Yang, Jungwon

<https://hdl.handle.net/2027.42/145706>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

*Downloaded from Deep Blue, University of Michigan's institutional repository*

# 2017 한국학 사서들을 위한 데이터 서비스 워크숍: 한국학 연구에 유용한 데이터베이스

양정원(Jungwon Yang)

국제정부정보 및 공공정책 사서  
미시간대학교 도서관

최근 미국과 캐나다 학계에서는 정부 통계, 여론조사 데이터, 지형 공간 데이터(Geo-spatial data),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데이터 시각화(Data Visualization), 그리고 다양한 디지털 휴머니티(Digital Humanities) 연구방법들이 여러 연구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새롭게 만들어진 연구 데이터를 보존하고 그 데이터를 미래에 다른 연구에 사용하기 용이하도록 돕는 데이터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미국과 캐나다의 많은 대학 도서관에서 개발, 제공하고 있다. 한국학을 비롯한 동아시아 연구 분야에서도 연구자들의 연구활동을 돕기 위해 동아시아 연구사서들이 이러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북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학 사서들을 위해 개최되었던 미시간 대학 도서관의 2017 Workshop on Korean Data Services 워크숍을 소개하고, International Data 수업과 Korean Data 수업 중에 소개된 한국학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관해 설명하고자 한다.

## 1. 2017 한국학 사서들을 위한 데이터 서비스 워크숍



[그림 1] 2017 한국학 사서들을 위한 데이터 서비스 워크숍 참가자들

2017년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동안 미국 미시간(Michigan) 주 앤아버(Ann Arbor)에 위치한 미시간 대학교(University of Michigan, U-M) 도서관은 북미지역(미국, 캐나다), 유럽 지역의 한국학과 동아시아학 사서들을 위한 데이터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 워크숍은 국제정치, 동아시아 연구, 디지털 인문학(Digital Humanities), 데이터 시각화(Data Visualization), 연구 데이터 관리(Research Data Management)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7명의 미시간대학교 도서관 연구사서들과 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ICPSR)<sup>1)</sup>의 수업자료 개발 팀 디렉터

1) ICPSR은 1962년에 설립된 미국 최대 사회과학 데이터 리포지터리이다. 많은 미국 국내외의 사회 과학자들과 정부기관, 국제기관들이 ICPSR의 리서치 데이터 큐레이션, 데이터 보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덕분에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고급 통계 사회과학의 데이터를 자신의 연구에 사용할 경우, ICPSR을 통해 데이터를 얻는 경우가 많다(<https://www.icpsr.umich.edu/icpsrweb/ICPSR/>). 이 기관은 또한 1963년부터 매년 여름 두달동안 사회과학 리서치를 위한 계량연구 여름 워크숍(ICPSR Summer Program in Quantitative Methods of Social Research)을 개최하여 사회과학 연구자들이 리서치 디자인, 통계, 데이터 분석, 방법론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https://www.icpsr.umich.edu/icpsrweb/sumprog/>

(Director of Instructional Resources and Development)인 리넷 홀터(Lynette Hoelter), 그리고 프린스턴대학교 이형배 한국학 연구사서가 총 11개 강의를 담당하였다<sup>2)</sup>. 28명의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학 사서들이 워크숍에 참석하였다.

이 논문에서 소개할 데이터베이스들은 International Data 수업과 Korean Data 수업에서 소개된 것이다. International Data 수업에서는 국제경제협력기구(OECD), 국제통화기구(IMF),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계 데이터베이스에서 한국 및 동아시아 국가의 데이터를 찾고 다운로드 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고, Korean Data 수업에서는 한국통계청, 한국은행, 한국사회과학자료원으로 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계 및 조사 데이터에 대해 알아보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국제기구의 데이터와 한국정부기관과 연구기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의 특성과 장단점, 해외 연구기관에서 접근이 제한적인 데이터의 특성, 연구의 성격에 맞는 데이터의 선택, 연구사서의 데이터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논의도 이 수업 중에 이루어졌다.

## 2. 한국학 연구에 유용한 데이터베이스

### 2.1 국제정부기관의 데이터베이스

빠른 인터넷 서비스로 손쉽게 웹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해외 연구자가 한국에 관련된 각종 데이터를 해외에서 얻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연구에 쓸 만한 신뢰성 높은 데이터를 얻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신뢰성 높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국제정부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 국제통화기구(IMF),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들이 그 중 대표적인 예이다.

<sup>2)</sup> 2017 한국학 사서를 위한 데이터 서비스 워크숍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미시건 대학 한국데이터 리서치 가이드에서 제공되고 있다. <http://guides.lib.umich.edu/koreadata/workshop2017>

### 2.1.1 OECD iLibrary<sup>3)</sup>

OECD는 1961년 창설된 경제협력기구이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피폐해진 유럽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미국이 진행했던 유럽부흥계획의 일환으로 1948년에 설립되었던 유럽 경제협력기구(OEEC)가 개편 확장되어 현재의 형태를 이루었다. 초기의 목적은 유럽과 북미의 경제 협력이었으나 지금은 정치,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논의를 하는 국제기구로 확장되었다. 현재 35개국이 정식 멤버이며 대한민국은 1996년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OECD iLibrary는 1998년 이래 OECD에서 발행한 모든 책과 보고서, 그리고 통계 데이터를 제공하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이다. 2018년 1월 기준 11,710권의 전자책, 175,500개의 통계와 그래픽 데이터, 5,600개의 연구보고서, 42개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50억 개의 데이터 포인트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제공하는 자료는 모두 17개의 토픽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economics), 농업과 식품(agriculture and food), 발전(development), 교육(education), 고용(employment), 에너지(energy), 환경(the environment), 금융과 투자(finance and investment), 거버넌스(governance), 산업과 서비스(industry and services), 원자력 에너지(nuclear energy), 과학 기술(science and technology), 사회적 이슈/이민/건강(social issues/migration/health), 세금(taxation), 무역(trade), 교통(transport-ITF), 도시/지방/지역 발전(urban, rural and regional development)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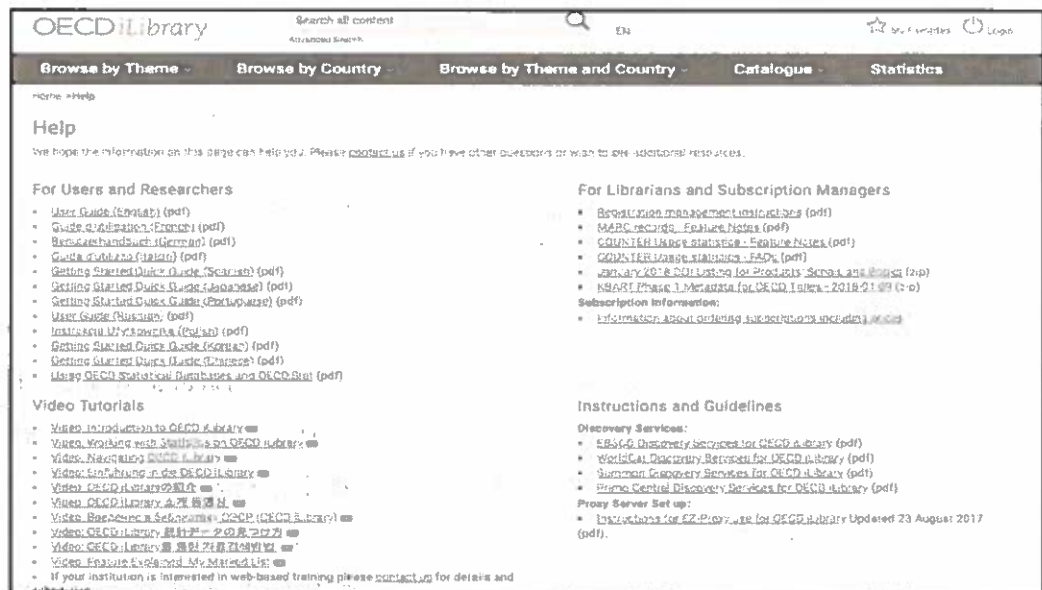


[그림 2] OECD iLibrary 홈페이지

3) <https://www.oecd-ilibrary.org/>

기존 OECD iLibrary는 유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였으나 최근 무료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되는 전자책과 연구보고서의 경우 PDF 와 READ 두 가지 방법으로 자료에 접근이 가능하다. 원래 전자책과 연구보고서의 경우 유료 사용자만이 이용할 수 있었던 서비스이다. 유료서비스를 사용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PDF 옵션을 통해 전체 전자책이나 연구보고서를 다운받을 수 있으며, 그 보고서나 전자책에 데이터나 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엑셀 파일이나 CSV파일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최근 소속 연구기관에서 유료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도 READ 옵션을 사용하면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는 없으나 브라우저에서 책 전체를 읽는 것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통계 데이터의 경우 에너지, 복지, 건강 관련 데이터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료가 무료로 전환되었다. 통계 자료의 상세한 정보는 OECD iLibrary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의 STATISTICS 옵션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그림 2. 참조).

기본적인 자료검색 방법을 알려주기 위한 사용자 가이드와 비디오 가이드도 다양한 언어들로 제공되고 있다(한국어 포함).<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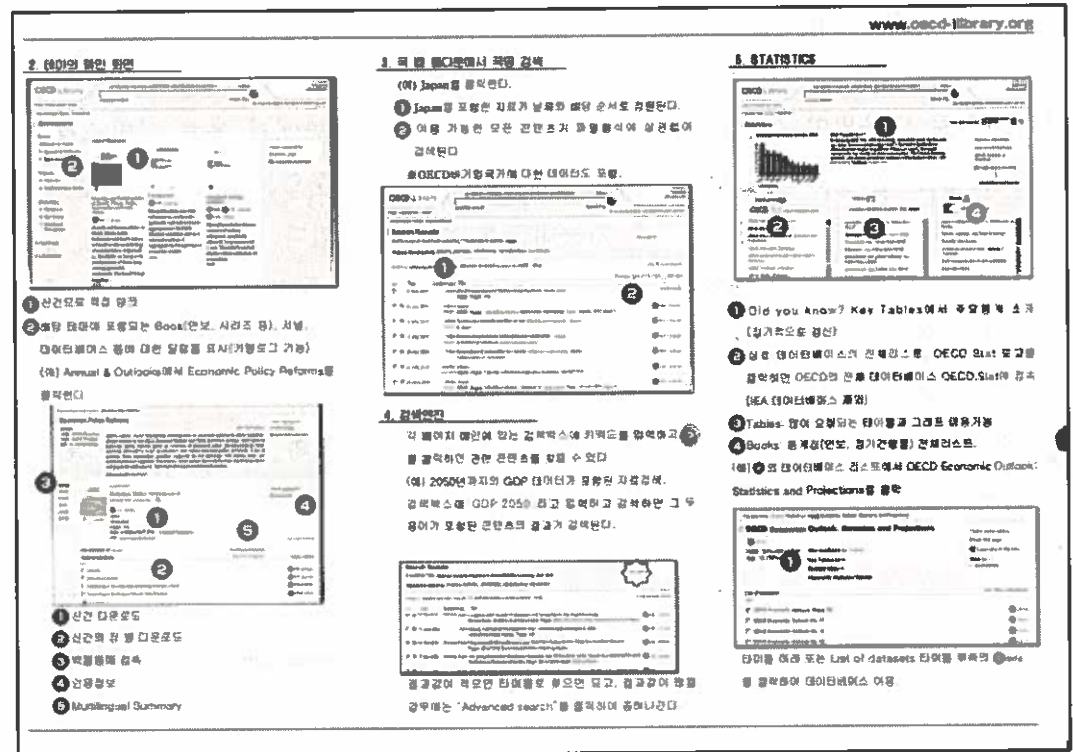


[그림 3] OECD iLibrary 사용자 정보 페이지

4) <https://www.oecd-ilibrary.org/userguide/about>



특히 2장으로 구성된 한국어 OECD iLibrary 포켓 가이드와 유튜브(YouTube) 비디오 파일은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지역의 연구사서들이 OECD iLibrary 데이터베이스의 검색기능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 OECD iLibrary 포켓 가이드 한글 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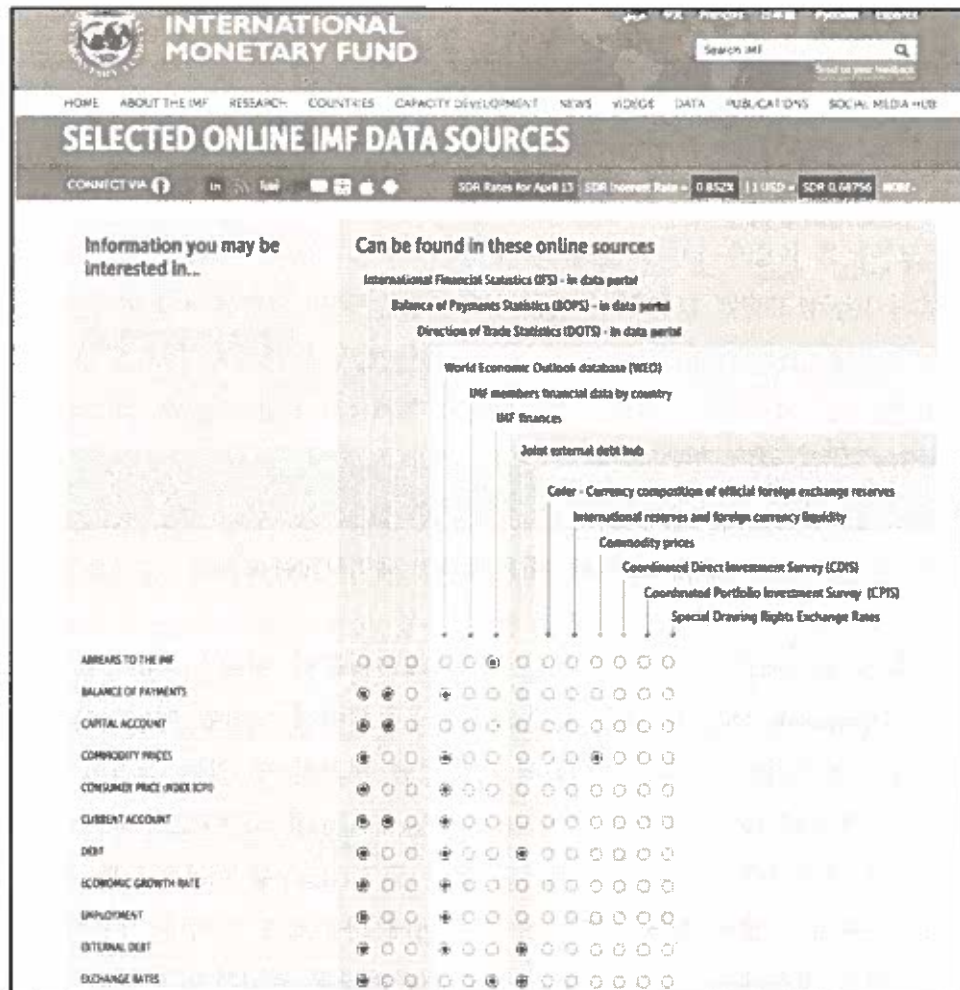
### 2.1.2 IMF Data<sup>5)</sup>

국제통화기금(IMF)은 1944년 7월 미국 뉴햄프셔 ‘브레튼 우즈(Bretton Woods)’에서 열린 유엔 회의 후에 만들어진 국제기구로, 1930년대 대공황의 원인이 되었던 경제적인 화폐가치 절하를 방지하고 전 세계 국가의 경제적 협력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설립되었다. 초기에는 44개의 회원국으로 시작되었으나 최근에는 189개의 국가가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IMF 데이터(IMF Data) 웹사이트는 IMF에서 운용하

<sup>5)</sup> <http://www.imf.org/en/Data>

는 데이터베이스로 각 국가의 환율, 대출,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 무역 등 전 세계 국가의 거시경제와 금융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거의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전 세계 모든 이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sup>6)</sup>

2018년 4월, 39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각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특성은 'Selected Online IMF Data Sources' 페이지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sup>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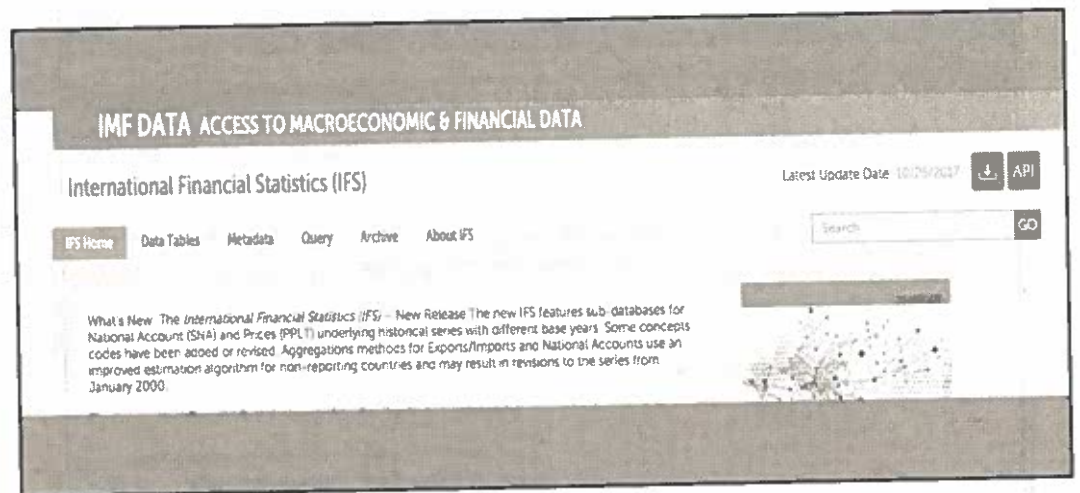
[그림 5] Selected Online IMF Data Sources 페이지

6) IMF Data는 2015년도까지는 유료였으나 이후 무료로 전환되었다. 현재 The Annual Report on Exchange Arrangements and Exchange Restrictions(AREAER)만 유료로 제공되고 있다.

7) <http://www.imf.org/external/np/ds/matrix.htm>



39개의 데이터베이스 중 가장 자주 이용되며 가장 포괄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는 국제금융통계(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IFS) 데이터베이스이다.<sup>8)</sup> IFS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환율, GDP, 국제유동성(international liquidity), 통화지표(monetary statistics), 물가, 노동, 금융, 정부 재정, 인구 등 전 세계 국제통화기구 회원들의 각종 거시경제에 관련된 통계를 얻을 수 있으며, 많은 데이터가 1948년 1월부터 제공되고 있다.



[그림 6] 국제금융통계(IFS) 데이터베이스

IMF 데이터는 유엔 회원국으로부터 받은 데이터뿐만 아니라 IMF 통계부(IMF Statistics Department, STA)와 다른 국제기구나 공동체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같이 제공하고 있어 연구자들이 쉽게 데이터의 신뢰성을 체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연구자가 연구목적에 맞는 시계열 데이터(time-series data)를 다운로드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각 데이터베이스 윗줄에 배치된 옵션 중 QUERY를 이용하도록 한다(그림 6. 참조). 사용자가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다운로드 받거나 사용한 기록을 저장하고 싶은 경우에는 개인사용자 계정을 개설하도록 권고하고 있다.<sup>9)</sup>

8) IFS 데이터베이스 <http://data.imf.org/?sk=4C514D48-B6BA-49ED-8AB9-52B0C1A0179B>

9) 개인사용자 어카운트 개설은 무료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다.

### 2.1.3 World Development Indicators(World Bank)<sup>10)</sup>

세계은행(World Bank)은 다른 상업은행에서 용자를 받을 수 없는 개발도상국에 임시 빈곤자 대출을 하는 목적으로 1946년 8월에 발족하였다. WDI 데이터베이스는 World Bank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통계 서비스 중의 하나이다.<sup>11)</sup> 2000년대 초반까지는 유료이용으로 CD-ROM으로 판매되었으나 이후 전부 무료화 되었다.<sup>12)</sup>

이 WDI 데이터베이스는 개발도상국의 정치, 교육, 환경, 사회 정의, 빈곤 등의 복지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공식적이고 신뢰할 만한 몇 안 되는 중요한 자원이다. 예를 들어 OECD iLibrary의 경우 회원국 중심의 자료를 주로 제공함으로 인해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이나 OECD 회원국이 아닌 국가들-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동남아시아 국가들, 아프리카와 많은 남미 국가들-의 자료를 많이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IMF Data의 경우에는 거시 경제 및 금융 데이터 수집이 목적이므로 정치, 복지, 빈곤, 교육에 관련된 자료는 제공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이나 최빈국의 정치, 사회 문제에 관련된 연구를 위한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는 WDI 데이터베이스가 주로 사용된다. WDI의 모든 데이터는 1960년부터 시작된다. 월간이나 분기별 데이터는 제공되지 않으며 연간 데이터만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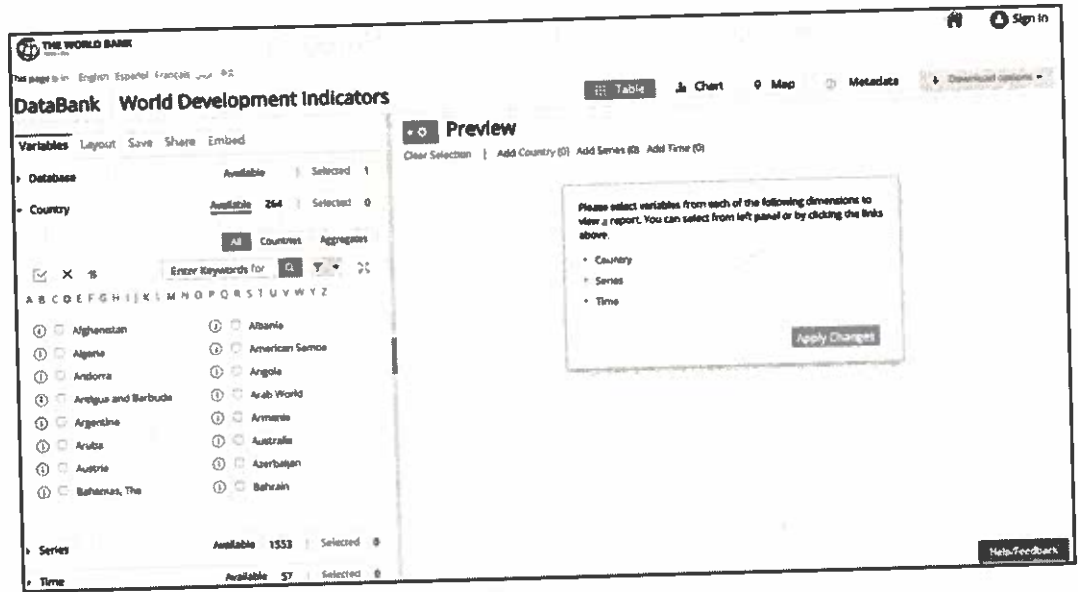
앞서 살펴본 국제정부기구의 데이터베이스들의 장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제경제기구, 국제통화기구, 세계은행에서는 회원국이 자국의 관련된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수집, 보고하게 하고 있다. 또한 이들 기관은 데이터 수집에 기준이 되는 표준들을 회원국에게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제기관의 데이터를 이용하는 연구자들의 경우 각 국가의 공식적인 정부통계 데이터를 한 번에 습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 데이터들이 같은 표준을 이용하여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간 비교연구에 쉽게 사용할 수 있다.

10) <http://databank.worldbank.org/data/reports.aspx?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11) 세계은행에서 제공하는 전체 데이터서비스는 DataBank 라고 통칭한다. 그중 현재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Statistical Capacity Indicators, Education Statistics, Gender Statistics, Health Nutrition and Population Statistics 데이터베이스가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공개되고 있다. 데이터뱅크의 모든 자료는 다음 링크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http://databank.worldbank.org/data/home.aspx>

12) 세계은행에서 출간하는 전자책과 연구보고서를 제공하는 World Bank eLibrary 전자도서관은 유료서비스이다. <https://elibrary.worldbank.org/>



[그림 7] 세계은행 WDI 데이터베이스

이들 국제기관은 단순히 회원국 정부의 공식 데이터를 수집,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기관들이나 자체 통계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도 동시에 제공해 연구자가 각 정부의 데이터와 비교하여 데이터의 신뢰성을 검증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많은 기존의 유료 데이터 서비스를 무료 서비스로 전환하고 있어 연구자들이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손쉽게 습득하고 사용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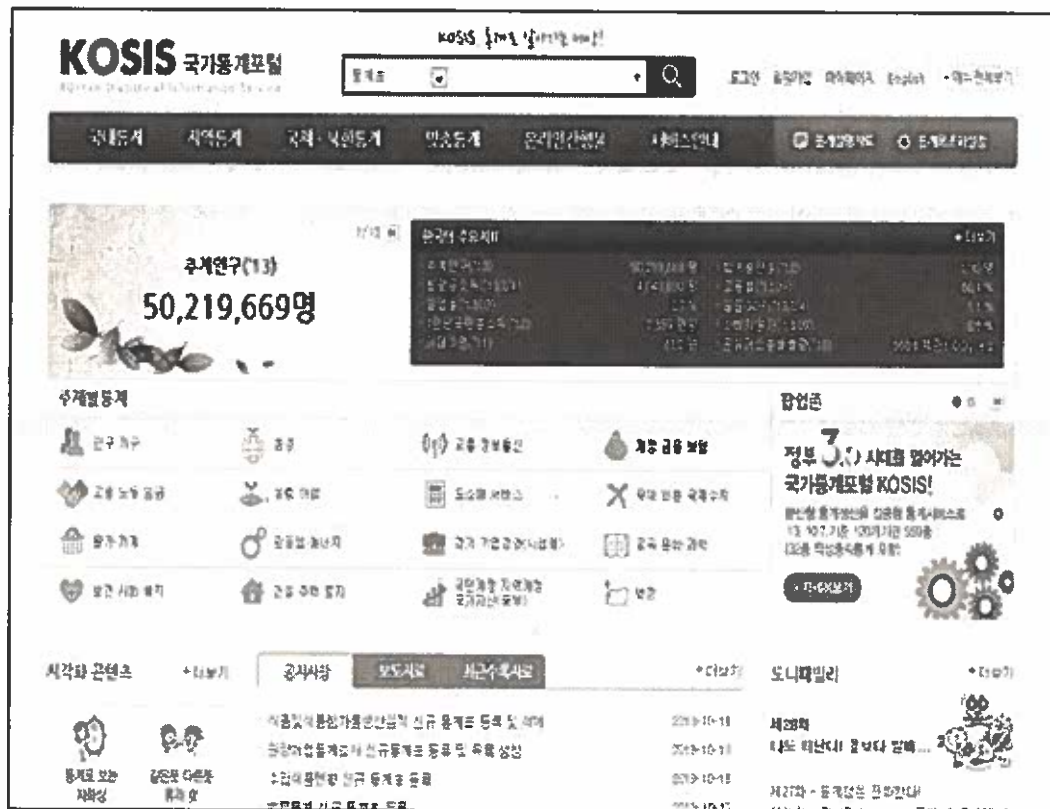
많은 국제기관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단점 또한 존재한다. 첫째, 대부분 국제기관의 데이터는 2차 대전 이후 1950년부터 시작된다. 대부분의 국제기관이 1944년 브레턴 우즈 회의(Bretton Woods Conference) 이후 국제적·경제적·정치적 협력을 위해 설립되었고, 2차 대전 이후 피폐해진 국가의 경제 복구를 위해 대부분의 국가가 정부 통계자료 수집을 할 만한 여력을 1950년대까지는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2차 대전 이전의 시기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는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한다. 둘째, 분기별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나 대부분의 국제기관 자료는 연간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따라서 월별, 분기별 주기의 데이터가 필요한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기관의 데이터는 국가 단위의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도, 군, 시 단위의 데이터를 사용하기 원하는 연구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1950년대 이전 시기의 데이터,

도, 군, 시 단위나 월별 분기별 데이터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한국학 관련 연구자에게는 한국 통계청, 한국은행, 한국사회과학자료원 등 한국정부기관이나 한국 내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적절하다.

## 2.2. 한국 내 유용한 데이터베이스

### 2.2.1 국가통계포털(KOSIS)<sup>13)</sup>

국가통계포털(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KOSIS)은 한국 통계청이 국내, 국제, 북한의 주요 통계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이다.



[그림 8] 한국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

13) <http://kosis.kr/index/index.do>

현재 300여 개의 국가 정부기관이 작성하는 1,000 여종의 국가공식 승인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KOSIS가 제공하는 국내 통계는 인구/가구, 물가/가계, 농림/어업, 광공업/에너지, 건설/주택/토지, 고용/임금, 교육/문화, 도소매/서비스, 보건/복지, 사회, 과학/환경, 교통/정보통신, 경기/기업경영, 국민계정/지역계정, 재정/금융, 무역/국제수지와 같이 총 16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제공되고 있다. 국내 통계와 더불어 지역자치단체의 생활환경 및 경영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통계들을 선정하여 지역간 평가 및 비교가 가능하도록 돕는 e-지방지표, 북한통계14)를 제공하고 있으며 광복 이전통계, 작성중지통계도 제공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더욱 상세한 통계는 통계청에서 운영하는 북한통계 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다. 통계청에서는 유엔 등 국제기구, 국내 유관기관에 산재해 있는 북한통계를 수집하여 1995년부터 매년 <북한의 주요통계지표>를 발간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북한의 인구, 농림수산업, 대외거래, 경제 총량 등 14개 분야의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1995년부터 2006년까지는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라는 제목으로, 2007년부터 2017년까지는 <북한의 주요통계지표>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모든 출판물은 PDF 파일 형태로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다.



[그림 9] 통계청 북한통계

14) <http://kosis.kr/bukhan/index.j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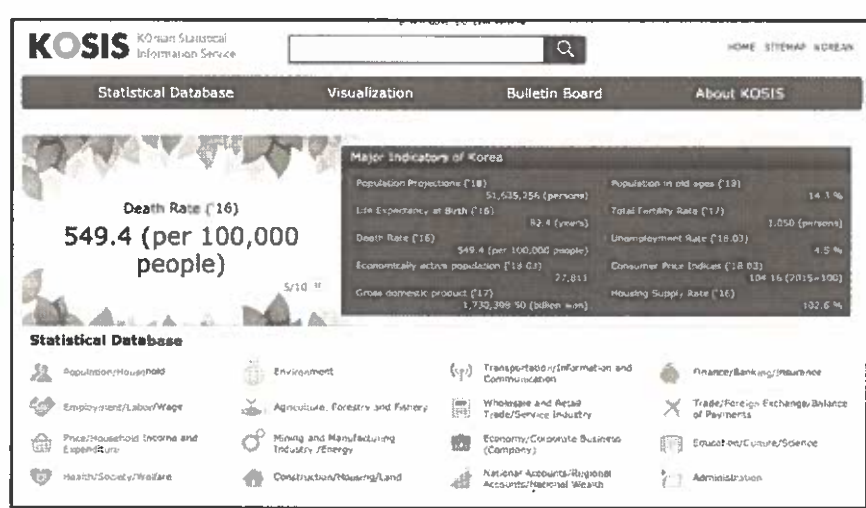


를  
광  
되,  
제  
거  
역  
광  
  
을  
를  
는  
있  
터  
DF

다른 국가의 정부통계 서비스와 비교해 볼 때 한국 통계청의 KOSIS 통계 서비스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모든 국가정부 기관의 통계를 모두 모아 한곳에서 볼 수 있고 모든 데이터가 무료이며<sup>15)</sup>, 광복이전의 통계나 중지된 통계, 북한의 통계 또한 모두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해외 연구사로서서 편리한 점 중 하나는 KOSIS가 영문버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문버전에서는 웹사이트 상단 좌측에 위치한 Statistical Database를 통해 국내통계 영문버전을 이용할 수 있다.

영문버전 KOSIS<sup>16)</sup>를 이용할 때 주의 할 점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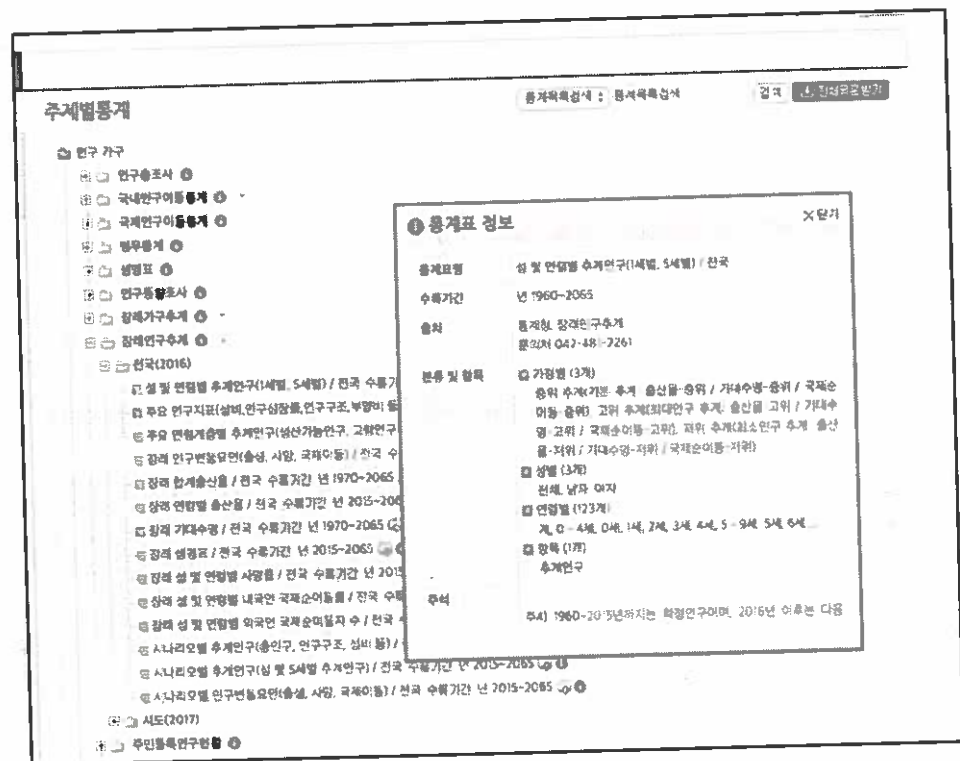
우선 같은 이름을 가진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한국어버전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의 양과 차이가 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어버전에서는 1930년대부터 시작되는 인구 통계 데이터가 영문버전에서는 1960년대부터 제공될 수 있다. 또한 북한통계, 광복 이전 통계, 중지된 통계는 한국어판 데이터베이스에서만 제공되고 있다.



[그림 10]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영문버전)

- 15) 미국의 경우 법적으로 연방정부의 문서나 데이터는 모두 미국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되나 지방 정부 데이터의 경우 법적으로 일반국민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지방정부의 재량에 따라 지방정부의 문서나 데이터는 유료로 판매될 수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많은 경우 국가의 통계 데이터가 유료로 판매되고 있다.
- 16) <http://kosis.kr/eng/>

각각의 통계데이터 수집 작성에 관련된 메타 데이터는 “통계표 정보” 라는 방식으로 제공되는데 한국어버전의 KOSIS에서는 열람이 가능하지만 영문버전에서는 볼 수 없다. 통계표 정보는 수집기간, 데이터의 출처, 데이터의 형태, 데이터 작성자에 대한 정보, 데이터를 만든 이가 다른 연구자들을 위해 작성한 메모를 담고 있어 그 데이터를 자신의 연구에 사용하려는 연구자에게는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해외 한국학 사서들의 경우 영문버전을 사용하는 연구자에게 한국어버전의 데이터에 첨부된 통계표 정보의 존재에 대해 연구자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그림 11] 통계표 정보의 예

## 2.2.2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ECOS)<sup>17)</sup>

한국은행의 경제통계 시스템(Economic Statistical System, ECOS)은 한국의 통화 및 금리, 국민소득, 물가, 국제수지, 자금순환, 경기, 기업경영분석, 산업연관표 등 한국

17) <https://ecos.bok.or.kr/EIndex.jsp>

의 기본경제통계를 제공하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이다. 2004년 1월부터 정책입안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서비스 하고 있다.



[그림 12]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영문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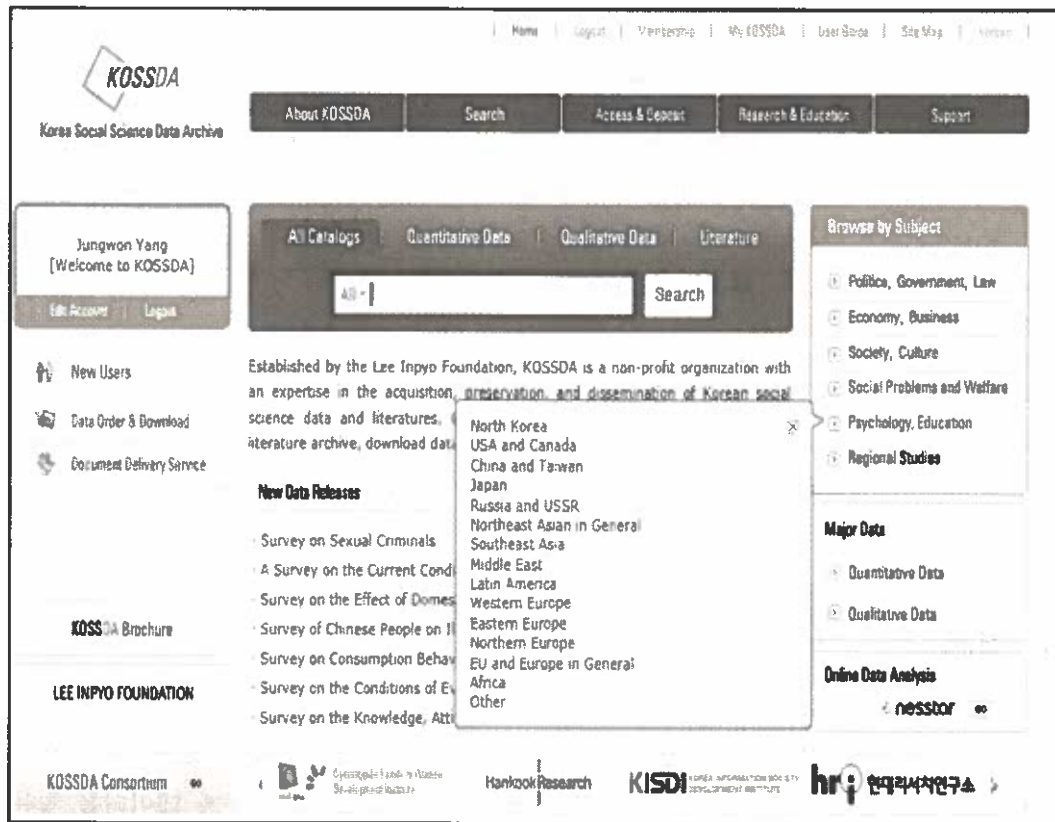
ECOS 데이터는 간편검색, 복수통계 검색, 복수주기 검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검색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연구자가 서로 다른 주기(일, 월, 분기, 년 등)의 데이터를 검색하기를 원한다면 국제기관이나 한국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상세한 경제 통계 데이터를 원하는 경우 이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예를 들어 1971년 매달 과일의 물가를 알고 싶다면 통계청의 KOSIS 데이터를 이용하면 되지만, 매달 사과, 바나나, 오렌지 각각의 물가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하기를 원한다면 한국은행의 ECOS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든 데이터의 사용

은 무료이며 영문버전의 사이트로 운영하고 있어 해외 연구자가 사용하기에도 용이하다<sup>18)</sup>. 한국은행에서 발간하는 주요 정기 통계 간행물(조사통계월보, 경제통계연보 등)도 엑셀 파일이나 PDF파일의 형태로 ECOS를 통해 다운 받을 수 있다.

### 2.2.3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rea Social Science Data Archive, KOSSDA)은 1983년 이인표 재단이 설립한 비영리 사회과학 정보서비스 전문기관이다. 이 자료원은 연구자들이 만든 연구 데이터와 문헌을 함께 보존하는 서비스를 한국 최초로 도입하였다. 2016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 흡수되어 자료 서비스와 통계 방법론 교육을 계속하고 있다. 현재 자료공유 협약을 한 27개의 국책 연구기관, 그리고 100여 명의 한국 사회과학자들이 자발적으로 데이터와 연구보고서, 논문들을 기탁하고 있다. 주로 정치, 경제, 심리, 교육, 문화 등 사회과학 전 영역에 걸친 양적 및 질적 데이터와 연구 문헌을 소장하고 있다. 주요 양적자료로는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와 국제 사회조사(ISSP)를 포함하는 조사자료 1900여 데이터 세트와 사회 및 경제데이터 1,900여 건을 소장하고 있다. 질적자료로는 지역 공동체, 정치 및 사회운동, 빈곤, 해외이민자, 국내 거주 이주노동자, 사회조사 관련 기록들이 텍스트, 오디오, 비디오 파일의 형태로 200 여 건 등이 기탁되어 있다. 한국어버전과 영문버전이 제공되고 있어 영어만 사용할 수 있는 연구자들도 KOSSDA의 자료를 검색 및 이용할 수 있다.

18) [https://ecos.bok.or.kr/EIndex\\_en.jsp](https://ecos.bok.or.kr/EIndex_en.jsp)



[그림 13]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영문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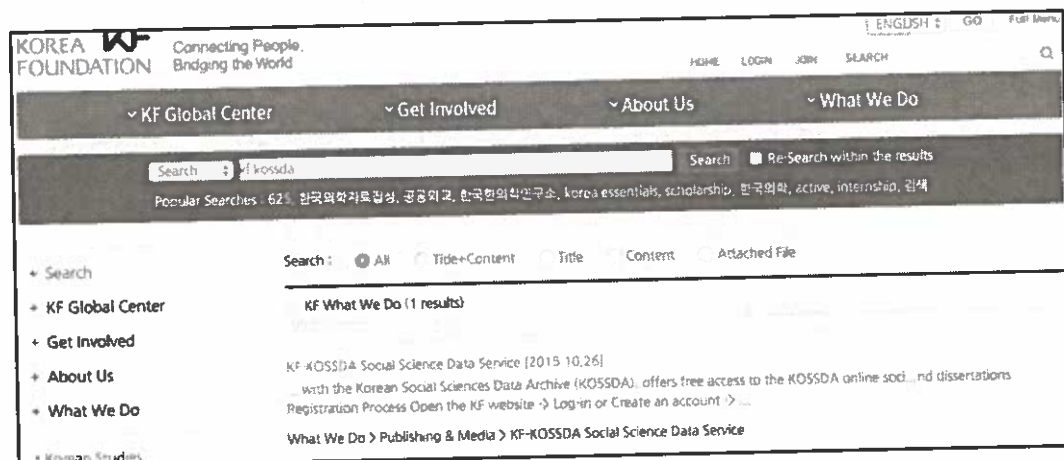
해외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에게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의 데이터는 무료로 제공되지만, 자료원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하다. 우선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n Foundation, KF)<sup>19)</sup>에 개인 계정을 만든 다음, 한국국제교류재단 홈페이지의 KF-KOSSDA Social Science Data Service 링크<sup>20)</sup>에 접속해서 KOSSDA 개인 계정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sup>21)</sup>. 해외 이용자의 경우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승인을 받은 후에 데이터를 사용할 때에도 항상 한국국제교류재단의 KF-KOSSDA Social Science Data Service 링크를 통해 데이터에 접속해야 한다.

19) <https://en.kf.or.kr>

20) <http://en.kf.or.kr/?menuno=3830>

21) 신청서에는 반드시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연구기관의 이메일 주소를 기입해야 한다.





[그림 14] Kf-KOSSDA Social Science Data Service

### 3. 결론

해외 연구사서들은 언제나 연구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 서비스를 해오고 있지만, 연구자의 연구에 적합하며 신뢰할 만한 통계 데이터를 찾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예를 들어 국제기관의 데이터베이스는 소속기관의 특성과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주로 수집, 제공하기 때문에 연구자가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모두 찾기가 힘들다. 또한 1950년대 이전 데이터의 경우나 시도군 단위의 데이터를 연구자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제기구의 데이터보다는 한국 통계청이나 국내 연구기관의 데이터를 이용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이와 반대로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해외연구자에게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나 통계청 영문버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데이터를 굳이 한국어버전의 통계청 웹사이트나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과 같은 전문적인 통계 사이트를 이용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연구에 차질을 빚도록 하는 일 또한 없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해외 연구사서들은 통계 데이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연구자들과의 사전 컨설팅 미팅을 통해서 연구자의 연구에 대한 충분한 대화 후에 적합한 데이터베이스를 추천하기를 제안한다.

학문 분야를 막론하고 해외 연구자들의 다양한 형태의 한국 관련 데이터를 연구에 이용하려는 경향이 높아지는 반면, 한국정부나 국내 연구기관의 데이터나 정부 자료 중 영문으로 번역되어 해외 연구자들에게 제공되는 양은 아직 제한적이다. 따라서, 한국 통계 자료를 해외 연구자들이 원활히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학 사서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소개한 국제기관, 한국정부 그리고 한국 내 연구기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정보가 해외 한국학 사서들과 한국에 관련된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